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에 관한 질적 연구

민은영¹, 장유진^{2*}

¹고창중학교, ²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eachers' Exam

Eun-Young Min¹, Yoojin Jang^{2*}

¹Gochang Middle School

²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에서는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0명의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일대일 면담을 진행하였고,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꿈인 교사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며, 임용 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고자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학교 관리자로 부터의 차별 대우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로 인한 자존감의 저하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별이 오히려 임용 시험 준비에 대한 강한 의지로 전환되어 참여자들은 안정되고 당당한 교사 신분을 얻기 위해 임용시험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시험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공부시간, 끝없는 공부량, 다양한 삶의 역할 수행, 체력 저하, 난해한 시험 유형, 이전 실패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qualitatively examined the lives of non-tenured, secondary school teachers who are preparing for the teachers' exam. Semi-structured, face-to-fac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en teachers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Most of the participants had chosen a contract-based teaching position, believing that it would meet their financial needs, provide them with the satisfaction of being a teacher and, more importantly, afford practical help with their exam preparation. In practice, however, they suffered from low self-esteem and identity confusion due to discrimination by the school administrators. Ironically, this unfair treatment strengthened the participants' commitment to studying for the exam, in order to acquire a stable and secure position in school. However, they experienced a lot of study-related stress, including a lack of study hours, heavy study load, multiple life roles, physical exhaustion, the difficulties caused by the vague exam guide, and anxiety due to previous failure in the exam.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Keywords : Non-Tenured Teachers, Contract-Based Teachers, Secondary School, Teachers' Exam,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1. 서론

IMF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시된 교원의 감

축과 명예퇴직 정책으로 인해 교원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기간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었다[6]. 제도의 도입 이후 전

본 논문은 민은영(2015)의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요약·수정한 것임.

*Corresponding Author : Yoojin Jang(Hanyang Univ.)

Tel: +82-2-2220-2614 email: yoojinjang@hanyang.ac.kr

Received Nov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7,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국 초중고교에서 기간제 교사의 수는 점점 늘어나 2005년에 13,417명(전체 교원의 3.5%)이던 것이 2015년에는 42,042명(전체 교원의 9.8%)으로 급증하였다[19]. 이렇듯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학교 현장에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주체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학생들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과 비정규직, 계약제 교원 신분으로 인한 고용의 불안정성과 차별적인 처우 문제가 교육적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책 기조가 세워지면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 문제가 논의되었다가 예비 교사들과 교원 단체의 반발로 결국 무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21].

기간제 교사는 경력이나 호봉은 인정받지만 정규직 교사와는 달리 수개월 혹은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교에서 맡은 역할과 업무 측면에서는 정규 교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2].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 현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이들의 삶과 문화가 정규직 교사와는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이들의 교직 생활과 경험을 이해하려는 실증적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2], 기간제 교사가 학교교육에 미치는 영향[7, 10]이나 그들의 직무만족이나 스트레스[5, 13, 14, 17, 22, 23], 교직원[22, 24]과 같은 교직 적응 관련 변인들을 다룬 양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양적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간제 교사의 삶과 교직 생활을 심도 있게 탐색한 질적 연구도 소수 존재하긴 하지만, 이 역시도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 16, 18]가 주였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의 교사의 직무와 역할에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학교급에 따른 기간제 교사의 삶도 상이할 가능성이 높다[2]. 하지만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삶과 문화, 교직생활을 깊이 있게 조명한 연구들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김현지[9]는 7명의 중등 체육교사들을 심층 면담하고,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면담 내용을 분석하여 직무 스트레스의 구조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체육 교사들의 핵심적 경험은 ‘과중한 업무’, ‘차별대우’, ‘자

격지심’으로 개념화 되었고, 이러한 스트레스에 대해 참여자들은 침묵으로 순응하거나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더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처의 결과로 이직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하거나 학생들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써 적응해 가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철웅과 허병기[2]는 1개의 사립 고등학교에 재직하는 기간제 교사 12명을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교직생활에 대한 그들의 의식, 태도, 행동 등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이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과 같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자기개발, 성실성과 적극성, 학생들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등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서동설[4]은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해 중학교 수학과 영어 교과목의 기간제 교사 6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그들의 교직 적응 경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임용시험에서의 실패로 인한 좌절감을 안고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한 참여자들은 불공정한 채용과정, 열악한 처우, 불확실한 계약 여부 등으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여러 가지 불쾌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임용시험 합격에 대한 기대감이나 교사로 살고 있다는 점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자신의 직무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요약한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는 기간제 교사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과 이에 대한 대처방식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연구대상 면에서 특정 교과목을 담당하거나, 특정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로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에 연구결과의 전이가능성(transferrability)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기간제 교사의 교직 생활이 해당 학교의 물리적 상황과 인적 구성, 조직 풍토, 기간제 교사의 운영 체계 등과 같은 배경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점[2]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다양한 교과목 담당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보다 공통적인 주제들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가 교원임용 시험을 포기한 집단과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수행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교원임용

시험에 더이상 응시하지 않기로 결심한 기간제 교사와 임용 시험 준비와 기간제 교사 생활을 병행하는 교사들의 교직 생활과 문화는 이질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깊이 있게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한된 학교와 담당 교과목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선행연구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보다 다양한 교과목과 다양한 조건의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과 분석의 틀로 합의적 질적 연구(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이하 CQR)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CQR이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세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방법론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면담으로 참가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며 연구자들 간의 합의(consensus)를 중시하는 질적 분석 기법이다[12].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4.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인가?

2. 방법

2.1 연구 참여자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교직생활과 삶을 조망하고자 한 본 연구의 목적에 맞추어 본 연구의 면담은 충남과 전북 지역의 국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대표성 있는 표집을 위해 모든 참여자들은 각각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서로 다른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로 구성하였다. 아울러, 성별에서도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연구자의 지인과 참여자들의 추천을 받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활용하였다.

총 10명의 면담 참여자 중 5명은 여성, 5명은 남성이었다. 참여자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에 걸쳐져 있었는데,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으며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32세였다. 참여자들의 담당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중국어, 체육, 전기, 항해기관 등이었으며, 기간제 교직 경력은 1년 6개월에서 6년의 범위를 보였다.

2.2 자료수집 방법과 절차

면담 질문지는 기간제 교사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고찰과 연구자들의 전문적 경험을 토대로 개발되었다. 개발된 질문지는 감수자 1인에게 보내져 피드백을 받았으며, 감수 후에는 연구 참여자 기준에 부합하는 1인을 대상으로 예비면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최종 질문지가 완성되어 본 면담에 사용되었다. 최종 질문지는 (a)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 (b)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c)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d) 시험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요인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눈덩이 표집법에 따라 면담 대상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 동의를 요청하였다. 참가 동의 의사를 표현한 대상자의 편이에 맞추어 정해진 면담 일정과 장소에 따라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평균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되었다.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각각의 면담 자료에는 사례번호가 부여되었고, 부여된 사례번호에 따라 면담 내용은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되어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면담 자료 수집과 분석을 위해 CQR을 사용하였다. CQR은 개방형 질문과 반구조화된 면담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을 유도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연구팀과 감수팀을 두어 자료분석 및 해석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관점을 반영하며, 구성원들 간의 합의를 중시하는 팀 기반(team-based) 분석 기법이다[12]. 연구팀은 본 연구자 2인으로, 감수자는 CQR 분석 경험이 풍부한 상담심리 전공 교수 1인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은 다

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되었다. 1단계는 영역 부호화(coding of domains) 단계로 연구팀에서 먼저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영역의 초기목록(start list)을 생성한 후, 논의를 거쳐 4개의 최종 영역을 산출하였다. 2단계는 핵심개념 구성(developing core ideas) 단계로 연구자 2명이 독립적으로 사례별 각 영역의 요약 반응을 작성한 후, 토론과 합의를 거쳐 핵심개념을 구성하였다. 3단계는 감수(auditing) 단계로 감수자 1명이 연구팀 내에서 합의된 영역과 핵심개념이 원자료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연구팀에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3단계는 교차분석(cross-analysis) 단계로 연구팀에서 사례들 간의 유사한 핵심개념을 범주화하여 범주에 이름을 부여하고 각 범주가 사례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표기하였다. Hill 등[11]의 권유에 따라 도출된 범주가 모든 사례 혹은 1개를 제외한 모든 사례에 나타날 경우(9~10사례)는 "일반적(general)", 절반 이상의 사례에 나타나는 경우(5~8사례)는 "전형적(typical)", 절반 미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경우(1~4사례)는 "변동적(variant)" 범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안정성 체크(stability check) 단계로 연구팀에서 총 10개의 면담 사례 중 무작위로 2개를 교차분석에서 제외하여 이 2개의 사례에서 새로운 범주가 나타나거나 빈도가 두드러지게 변화하는지를 점검하였다. 안정성 체크 결과, 분석결과가 안정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3.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10명의 기간제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 분석 결과, 총 4개의 영역, 20개의 범주와 43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각 영역별로 나타난 범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인터뷰 참여자들의 반응에서는 7개의 범주와 12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1.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필요 충족.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거의 모든 참여자들은 많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수입으로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

에 대한 보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현하였다. 또한 7명의 참여자들은 교원임용 시험에 필요한 학원비, 교재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현실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일을 해야 했고,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더 이상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선 일하는 이유는 돈을 모아야 하니깐 <중략> 부모님 것은 부모님 것이고 내가 최대한 벌어서 장가도 가고 공부도 해야죠 어느 정도 모아놓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지는 않아요 (경제적 독립, 참여자2)

교직 생활의 기쁨과 보람. 8명의 참여자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업 과정이 가장 중요한 기쁨의 원천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수업 이외에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교직 생활의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역할 모델로 설 수 있다는 점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피드백도 교직 생활에 즐거움을 준다고 말하였다.

처음 기간제를 시작을 했을 때 업무가 축제, 창체, 담임이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 하는 것인데 담임도 맡게 되어서 부담이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재미도 있었고 학생들과도 잘 지냈어요 학생들도 점차 저한테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학생들이 저를 더 찾게 되면서 기쁨을 느꼈죠 지금도 그때 담임 했던 학생들과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과의 소통, 참여자 4)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력 쌓기. 참여자 중 8명은 학교에서의 현장 경험은 정규교사가 된 후 학교 현장에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들은 이후에 일하게 될 곳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기간제 교사로서의 경험은 정규교사로서의 업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응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Table 1. Reasons to choose a non-tenured teacher career

| Category | Subcategory | Response Frequency |
|--------------------------------------|--|--------------------|
| Meeting financial needs | | General(9) |
| | Stable income | General(9) |
| | Making a living cost | Typical(7) |
| Rewards of being a teacher | Economic independence | Variant(3) |
| | Playing a teaching role | General(9) |
| | Interactions with students | Typical(6) |
| | Positive role model | Variant(3) |
| Building experience in the field | Positive feedbacks from parents | Variant(3) |
| | | Typical(8) |
| Practical help with exam preparation | | Typical(7) |
| | Help for interview, pedagogical essay, class demonstration | Variant(4) |
| | Help for expertise in major | Variant(2) |
| | Getting exam-related information | Variant(2) |
| Effective use of time | | Variant(3) |
| | Securing study hours | Variant(2) |
| Feeling revitalized | Playing a parent role | Variant(1) |
| | | Variant(3) |
| | Concentration on studying | Variant(2) |
| Being tame at the familiar | Confidence in passing exam | Variant(1) |
| | | Variant(1) |

직위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간제 교사와 정교사와의 삶의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정교사가 되면 지금보다 업무나 책임감이 더 커질 것이나 힘들긴 하겠지만 기간제 경력이 밑바탕이 될 것 같아요. 기간제가 도움이 안 되다면 전 기간제 생활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의 경험과 경력 쌓기, 참여자 6)

교원 임용 시험에 도움이 됨.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기간제 교사 경험이 교원 임용 시험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기간제 교사들은 수업을 하면서 교원 임용 1, 2차 시험에 필요한 전공 소양, 교육학 논술과 면접 및 수업시연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고, 학교에 있으면서 다양한 임용 시험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기간제 교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시연 할 때는 확실히 도움이 돼요. 시연하기 전에 준비한 것이 있는데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할 때도 시연을 준비한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딱히 도움이 되기보다는 학교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흐름 같은 것을 아니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면접, 교육학 논술, 수업 시연에 도움, 참여자 8)

시간 활용의 효율성. 3명의 참여자들은 기간제 교사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로 시간 활용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2명의 참여자들은 다른 직장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임용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기혼인 참여자 1명은 다른 직장에 비해 퇴근시간이 빨라 집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기간제 교사직이 매력적이라고 응답하였다.

나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회사들에 비해 근무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내가 맡은 수업이랑 업무만 하면 되고 공식적인 야근도 없고.. 그러니까 입고 준비할 수 있는 공부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공부시간의 확보, 참여자 8)

활력이 생김. 본 연구의 면담 참여자 중 3명은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공부에 집중이 잘 되고, 교원 임용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고 고백하였다. 이들은 일을 하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었다면 심리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고 떨어지면 실패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도 편해지고 부담감도 없어지니깐 예전에는 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도 안 풀리던

문제가 지금은 잘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작년보다 더 기쁘고 잘 될 때가 있어서 좋아요. 요즘은 저한테 맞게 스트레스 안 받고 하려고 해요. 이번에 떨어진다고 해도 전 자신 있어요. 일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자신이 있어요.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좋아짐, 참여자 6)

익숙함에 무던해짐. 앞서 기술한 범주들은 주로 참여자들이 기간제 교사직을 적극적으로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것이라면, 이 범주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점이 다른 범주들과는 차별적이라 할 수 있다. 1명의 참여자는 자신이 사범대학에서 배운 것이 익숙하고 다른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어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였다.

했던 일이 쉬운 법이구요. 도전은 무서워 하잖아요. 새로운 환경은 힘든 일이잖아요. (익숙함에 무던함, 참여자 5)

3.2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의 어려움

기간제 교사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응답내용에서는 4개의 범주와 10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다. Table 2.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2. Difficulties in School

| Category | Subcategory | Response Frequency |
|-------------------------------|---------------------------------|---------------------------|
| Discrimination | | General(10) Typical(7) |
| | Blatant discrimination | Variant(4) |
| | Inferiority | Variant(3) |
| Burden on study due to work | Ambiguous identity | Typical(7) |
| | Lack of study hours | Typical(7) |
| | Physical exhaustion | Variant(3) |
| Job insecurity | | Typical(7) Variant(4) |
| | Anxiety about being moved | Variant(4) |
| Guilty feeling towards people | | Typical(5) |
| | Anxiety about contract renewal | Variant(4) |
| | Guilty feeling towards parents | Variant(3) |
| | Guilty feeling towards students | Variant(3) |

정규교사와의 차별. 참여자들 대부분은 정규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자의 눈치를 보며 상당한 위축감을 경험하고 있으며, 실제 학교 생활에서 관리자와 동료 정규교사들로부터 노골적인 차별을 겪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부당한 대우에 해서 항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힘의 차이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의 결과로 참여자들은 교사라는 정체성 자체가 뚜렷하지 않아지는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는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장, 교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를 정규교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항상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는 안 좋은 것은 기간제가 다.. <중략> 우리 학교만 해도 교장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들만 1년에 5, 6번은 부르거든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은 ‘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럼 젊은 정교사 선생님은 왜 안 불러요. 40 넘은 기간제 선생님은 불러. 불러서 하는 말은 ‘젊은 너희들이 해야 하니깐 젊은 너희들이 변화해야 하고 젊은 너희들이 출선수범을 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옷 같은 것도 젊은 선생님들 너무 짧게 입고 다닌다고 교장실 불러가서 혼나는데 젊은 정교사 선생님은 우리들보다 더 짧게 그리고 민소매도 입고 다니는데 뭐라고 안 해요. 불공평하고 불합리하잖아요. (노골적 차별 대우, 참여자 10)

일로 인한 공부에 대한 부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 생활이 도움을 주는 부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공부에 대한 부담감도 있음을 인정하였다. 대다수의 참여자들은 퇴근 후에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어 공부 시간이 충분치 않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였다. 그 결과 본인이 계획한 만큼의 공부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 등 심적인 부담도 크다고 응답하였다.

작년에는 9시 이전에 학교에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그 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 하고는 있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공부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많이 못하죠. <중략> 기간제 교사들이 교원 임용 시험에 떨어지는 이

유는 공부 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제 후배가 일하면서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 한다면 전 그냥 공부만 하라고 할 거예요. (공부 시간 부족, 참여자 5)

불안정한 신분. 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을 기간제 교사 생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매년 자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과 재계약 여부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는 계약직 신분에서 오는 불안정성이 그 이유였다.

우리는 약자니깐.. 재계약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정규 교사를 하려고 용을 쓰는 걸 거예요. (재계약에 대한 불안, 참여자 1)

주변인에 대한 미안함. 가족과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도 전형적이었다. 참여자들은 결혼을 했거나 결혼 적령기에 있어 가정을 책임 져야 하는 입장에서 아직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해 배우자나 미래의 배우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일부 참여자들은 교사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다음 해에도 함께하기를 바라는 학생들의 기대에 상처를 줄까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한테 미안해요. <중략> 내년을 보장 해줄 수 없다는 것. 지금도 1학년 담임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내년에는 어디 계세요? 내년에도 맡아주세요'라고 말하면 설βολ리 말할 수가 없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깐 미안해요. (학생들에게 미안함, 참여자4)

3.3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에 대해 5개의 범주로 반응하였고, 이러한 범주는 다시 9개의 하위 범주로 분석되었다. Table 3.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좋은 선생님’의 꿈 실현.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 10명 모두 어린시절부터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져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역할모델이 되어 그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며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는 ‘참된 스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임용 시험 준비의 가장 강력한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아울러, 자신이 배운 교과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아낌없이 학생들에게 쏟아 붓고 싶은 욕구도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용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좌우명이 ‘항상 남을 배려하면서 살자.’ 에요. 그래서 늘 학생들을 배려를 해왔고 학생들이 성장을 했을 때 학창시절을 떠올렸을 때 참 스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저’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학생들한테 잘한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해요. 경력이 많은 것도 연륜이 쌓인 것도 아니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학생들이 학창시절을 되돌아 볼 때 ‘그 선생님 만나고 싶다. 그 선생님 찾아뵙고 싶다.’ 느낄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 에요. (학생들과의 소통에 대한 열정, 참여자 4)

Table 3. Reasons to prepare for teachers' exam

| Category | Subcategory | Response Frequency |
|--|--|--------------------------|
| Realizing a dream of becoming 'a good teacher' | | General(10) |
| | Passion for interactions with students | General(9) |
| | Passion for good teaching | Typical(8) |
| Desire to get a stable and secure job | | General(9) |
| | Settling for a stable job | Typical(8) |
| | Discrimination -free workplace | Variant(4) |
| | Having legitimacy as teacher | Variant(4) |
| Influence of significant others | | Variant(3) |
| | Influence of family and friends | Variant(2) |
| | Suggestion from peers | Variant(1) |
| Seeking for a job matching aptitude and values | | Variant(2) |
| | Matching values Matching aptitude | Variant(2) Variant(2) |
| Seeking for a job related to college majors | | Variant(2) |

안정적이고 당당한 정규 교사직에 대한 소망. 10명의 참여자 중 9명은 안정감과 당당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규 교사직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고백하였다. 매년 재임용 평가에 불안해하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의 표현이 전형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다. 그들에게 정규 교사직은 경제적인 안정은 물론 한 곳에 정착할 수 있다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주는 꿈의 직업이었다. 또한 정규 교사들과의 차별적인 대우에서 벗어나 교사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과, 자격지심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남들에게 교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교실에서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교육관을 실현하고 싶다는 바람도 일부 참여자들이 표현하였다.

생각해 보니깐 내가 싫어하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요. 마음 편하게. 내가 정규교사가 되면 내가 원하면 6년까지 있을 수 있고 나를 재평가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를 재평가하고 긴장해야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싫어요. (안정적인 직장에서의 정착, 참여자 10)

주변인들의 영향. 일부 참여자들은 주변인들의 영향으로 인해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명의 참여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에게 꼭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표현하고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있어 임용 시험을 꼭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하였다. 어떤 참여자들에게는 직장 내 동료인 정규 교사들이나 같은 기간제 교사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교사들의 권유가 시험 준비를 계속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따라서 더 이루고 싶은 것 같아요. 남편도 교사고 시누이도 교사고, 시누이는 교원 임용 시험 3년 정도 준비하다가 됐거든요. <중략> 그래서 환경적인 이 유도 무시 못 하는 것 같아요. 나도 꼭 합류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과 친구들의 영향, 참여자 1)

적성과 가치에 맞는 직업. 2명의 참여자들은 교사가 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과 직업적 가치에 부합한다는 점

을 강조하면서 기간제 교사보다는 안정적인 정규 교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고, 보수나 근무여건 등이 자신의 가치와 잘 맞기 때문에 시험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가 아닌 회사에서 일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제 적성에 맞는 곳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교 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직업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적성에 적합, 참여자 2)

전공 살리기. 2명의 참여자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안정적인 정규직 교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대학에서 공부한 전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내용은 자신의 적성이나 직업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응답과는 질적으로 상이한 것으로 간주되어 독립된 범주로 분류되었다.

3.4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3가지 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석되었다. Table 4.에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4. Exam-related stress

| Category | Subcategory | Response Frequency |
|--|---------------------|--------------------|
| Study-related stress in preparing for exam | | General(10) |
| | Lack of study hours | Typical(8) |
| | A heavy study load | Typical(6) |
| | Multiple life roles | Variant (4) |
| | Physical exhaustion | Variant(3) |
| | Lack of effort | Variant(2) |
| Anxiety due to previous failure | A vague exam guide | Variant(2) |
| | | Typical(6) |
| | Low self-efficacy | Typical(6) |
| Fading passion | Test anxiety | Typical(2) |
| | | Typical(1) |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 스트레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 모두 임용 시험 준비 과정에서 공부와 관련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참여자들이 호소한 스트레스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6명의 참여자들은 임용 시험을 치르기 위해 소화해야 하는 공부량이 너무 방대해서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하였다. 가족 내에서의 역할과 기간제 교사의 역할에 더해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상황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의 한계를 느낀다고 보고한 참여자들도 있었고, 자신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백한 참여자도 소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스트레스 외에도 난해한 임용 시험의 유형 때문에 시험 공부가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참여자도 2명 있었다.

공부는 너무 어려워요. 장기간 준비를 했다고 해서 실력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영어 잘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중략> 지금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더 해야 한다는 현실에 너무 좌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영어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 (끝없는 공부량, 참여자 1)

이전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 인터뷰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이전에 임용 시험을 여러 차례 본 경험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절반 이상의 참여자들은 지난 시험에서 떨어진 기억 때문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다시 실패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자신감과 시험 불안은 이전 시험에서 최종 단계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 경험을 가진 참여자들에게서 특히 극명하게 드러났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몇 년 동안 공부만 해서 시험에 합격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어요. <중략> 교사를 생각하고 대학원을 가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실패를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낮은 자신감, 참여자 2)

희미해지는 열정. 참여자 1명은 유일하게 잦은 실패

로 인해 자신이 점점 교직에 대한 열정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으며 한탄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오랜 기간제 교사 생활에 나이가 점점 들어감에 따라 학생들과 소통하는데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학생들과 함께 하는 교사에의 꿈도 서서히 식어간다는 고백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이 어떠한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어 수행되었다. CQR 방식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환경의 학교에 근무하며 다양한 과목을 담당하는 10명의 중등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 자료를 분석하여 관련된 주제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선행연구에 비추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적 동기의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경제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꿈인 교사생활의 기쁨과 보람을 맛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기간제 교사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발견은 이들은 정규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정규교사가 된 이후의 교직 생활 적응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기간제 교사 생활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임용시험 전형의 요소인 교육학 논술이나 면담, 수업 시연 등을 준비하거나 임용시험 관련 정보를 얻는 데 현재의 직업이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다른 직업에 비해 공부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심지어 일시적이지만 교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였다. 중등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서동철[4]의 연구에서도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이유를 탐색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임용고사 불합격으로 인해 좌절하고, 기대하던 부모에게 죄책감을 느끼며,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접지 못해 기간제 교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유경훈 등 [18]의 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정규교사 임용의 꿈을 이루지 못해 기간제 교사라라도 교단에 서고 싶은 마음에서 기간제 교사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5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김동현과 박영우[3]의 연

구에서도 이들이 시험준비를 위한 경제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간제 교사를 선택하게 된 점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참여자들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의지로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 참여자들이 모두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과 기간제 교사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했는지는 향후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기간제 교사생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부당한 차별 대우라는 주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2, 4, 9]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다. 특이할 만한 점은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 관리자에게서 받는 차별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한 데 반해, 몇몇 선행연구[1, 4, 9]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동료 정규교사들로부터 받는 차별 문제도 함께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유경훈 등[18]은 기간제 교사들이 차별받고 정규교사들과 구분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가족처럼 배려 받으며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학교 내의 어떤 요인들이 기간제 교사들이 인식하는 차별 대우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조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부당한 차별 대우가 기간제 교사들의 자각지심과 정체성 혼란을 촉발 혹은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이방인이나 주변인처럼 느끼며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애환을 담아낸 선행연구[16, 20]의 결과와 일치한다.

신분의 불안정성에서 오는 불안감도 전형적인 수준에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선행연구[4, 5, 8, 15]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불안정한 고용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이직 의도가 높아지고 고용 불안정이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들의 교사로서의 헌신도를 저하시킨다는 전인 등[13]의 보고는 기간제 교사들의 신분 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또한 임용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일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빼앗기는 데서 오는 부담감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가족이나 가까운 주변인들에 대해 느끼는 미안한 마음도 이들에게는 큰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

과는 서동설[4]이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겠다는 다짐을 하지 못해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진술이 변동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간제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다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없는 고유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앞서 기술한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교원임용 시험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기간제 교사 생활의 서러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신분의 정규 교사가 되어 심리적인 당당함을 얻고 싶은 욕구가 참여자들의 임용 시험 준비에 강한 내적 동기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간제 교직생활에서 경험하는 차별이 오히려 시험합격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인들이 시험을 보도록 권하고 응원하며,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길이 결국 교사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의 시험 합격 노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임용시험 합격에 대한 기대나 의지는 선행연구[1, 4, 9]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드러난 바 있지만, 본 연구는 임용시험에 대한 의지와 노력이 어떤 내적 동기에서 발생하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였고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 참여한 기간제 교사들은 시험준비 과정에서 부족한 공부시간, 끝없는 공부양, 시험준비와 동시에 삶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점, 체력의 고갈, 스스로 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 난해한 시험 유형 등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전 실패 경험에서 오는 불안감도 전형적인 수준의 빈도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스트레스의 종류는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체육 교육학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준비 과정을 조사한 김동현과 박영우[3]의 연구결과와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임용시험 합격과 정규 교사 임용 후의 교직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교직 생활과 시험준비를 병행하는 데서 오는 공부시간의 확보 문제가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게서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역할, 기간제 교사로서의 역할,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서의 역할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과 박영우[3]의 연구참여자 중 5명이 특별한

직업 없이 시험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고 2명은 기간제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 소요가 많지 않은 스포츠 강사나 방과후 수업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중 역할로 인한 공부 시간의 부족 문제는 기간제 교사들의 고유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교직생활과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며, 선행연구 결과로 누락된 기간제 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집중되어 있었고, 특정한 학교나 특정한 교과목 담당 교사로 연구대상이 제한적이었다. 임용 시험 준비 여부로 대상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전이가능성이 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참여자들을 선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전이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사들의 교직생활과 삶에 관한 선행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CQR을 사용하여 도출된 주제의 빈도를 산출함으로써 각 주제가 참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현상학적 접근, 문화기술적 접근, 근거이론 등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QR과 주제 도출 방식에서는 유사하지만, 도출된 모든 주제들이 동등한 비중으로 간주되어 분석되기 때문에 참여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인식이 보다 보편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CQR을 활용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의 경험과 인식의 중요도를 가늠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동기가 아니라 교원 임용 시험과 정규 교사 임용 후의 교직 적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내린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동기라는 점은 본 연구의 새로운 발견이라 생각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임용시험 실패로 인한 좌절감과 교사가 되고 싶은 꿈을 포기하지 못해 기간제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임용시험의 파

정인 수업시연이나 면담에 도움이 되며 현장경험을 통해 임용시험 후의 정규교사 생활 적용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발견은 기간제 교사의 교직 생활 적응 유형을 분류하는데 있어,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스트레스나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외에도 추가적인 분류 기준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면담 대상을 다양한 교과목을 담당하고 상이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로 하는 등 연구 참여자의 특성 면에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소수의 참여자 수로 인해 참여자 특성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해서는 분석할 수 없었다. 기간제 교사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에 관해서는 향후에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결합하여 개발된 척도를 기반으로 양적 연구를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들은 여전히 탐색적인 수준의 자료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간제 교사직을 선택하게 된 내적 동기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불일치가 임용 시험 준비 여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렇다면 임용 시험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가 향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간제 교사의 교직생활과 삶을 조명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지식 기반을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지는 못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연구들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실증적 기반은 어느 정도 다져졌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정책적,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기간제 교사들의 구체적인 인식과 아이디어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B. M. Cho,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contract-based teachers to academic profess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hung University, 2010.

- [2] C. W. Park & B. K. Huh, "An ethnographic study on the contract teachers' school lives in a high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 31, no. 3, pp. 51-72, 2013.
- [3] D. H. Kim & Y. W. Park, "Physical education majored collegiate students' experience in preparation of secondary school teacher selection test: A grounded theory approac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Sport*, vol. 24, no. 1, pp. 79-94, 2011.
- [4] D. S. Seo,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adaption of the secondary school contracted-based teachers to academic profess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4.
- [5] E. S. Choi, "Study of the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n contracted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2008.
- [6] E. S. Jang, S. H. Choi, & G. E. Lee, "Effect of neoliberal education policy on the appointment system of teachers - Focusing on the growth of contracted teac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2, pp. 465-471,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2.465>
- [7] H. J. Choi, "The effect of fixed-term teachers on students' performance using the national-level students' scholastic aptitude test result - The case of general high school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vol. 32, no. 6, pp. 5-36, 2014.
- [8] H. J. Jun, "A study on the managerial state of contract-teachers and its improvem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University, 2010.
- [9] H. J. Kim. "Grounded theoretical analysis on the job stress for the short term physical teachers at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Sports Science*, vol. 21, no. 6, pp. 983-991, 2012.
- [10] H. K. Cho, "The effects of contract teachers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Korean Economy Association*, vol. 61, no. 2, pp. 5-29, 2013.
- [11] Hill, C. B.,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Hess, S. A., & Ladany, 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vol. 52, no. 2, pp. 196-205, 2005. DOI: <https://doi.org/10.1037/0022-0167.52.2.196>
- [12]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 25, no. 4, pp. 517-572, 1997. DOI: <https://doi.org/10.1177/0011000097254005>
- [13] I. Jun, S. H. Oh, & H. Y. Sung, "The effects of job insecurity among contract teachers on job stress and job attitud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30, no. 3, pp. 85-109, 2015.
- [14] J. H. Kim, "A study on job stress and stress-coping styles in contract-based secondary teachers: With priority given to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chool teacher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soong University, 2017.
- [15] J. J. Oh, "A study on the conditions and consciousness of contract teachers - In case of secondary schools in Busa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Busan National University, 2004.
- [16] J. S. Han, "A study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contracted teachers in elementary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013.
- [17] J. Y. Cho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job insecurity,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in private secondary school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Youngnam University, 2013.
- [18] K. H. Ryu, S. C. Choi, & B. C. Kim, "A ethnographical research on the school life of the elementary school's period-limit teachers",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 41, pp. 121-147, 2011.
- [19]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Education Statistics Yearbook: 2005-2015", Ministry of Education, 2016.
- [20] M. S. Lee, "A qualitative approach on role adaptation and performance through the experiences of temporary teachers"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8, no. 3, pp. 341-363, 2013.
- [21] Mael Business News Korea [Internet]. Contract-based, non-tenured teachers not allowed for tenure [cited 2017 Aug 22], Available From: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563061>. (accessed Nov., 1, 2017)
- [22] S. H. Kim, "A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of teacher's position, the view of teaching and job satisfaction - Focus on the difference of a regular teacher and term teache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9.
- [23] S. K. Kim "Determinants influencing on the burnout of short-term school counselo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vol. 51, no. 4, pp. 15-71, 2014. DOI: <https://doi.org/10.15300/jcw.2014.51.4.51>
- [24] S. S. Go,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rm teachers' view of teaching profession and troubl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1.

민 은 영(Eun-Young Min)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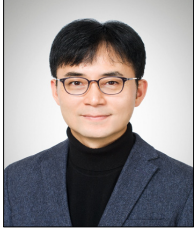
- 2015년 8월 :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 (교육학석사)
- 2015년 3월 ~ 2016년 2월 : 합열여자고등학교 교사
- 2016년 3월~ 현재 : 전북 고창중학교 진로상담교사

<관심분야>

청소년상담, 청소년심리, 진로상담

장 유 진(Yoojin Jang)

[정회원]



- 1999년 2월 :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상담심리학석사)
- 2009년 12월 : The Univ. of Iowa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박사)
- 2011년 4월 ~ 2016년 8월 : 원광대학교 조교수, 부교수
- 2016년 9월 ~ 현재 : 한양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상담자교육, 상담수퍼비전, 교원교육